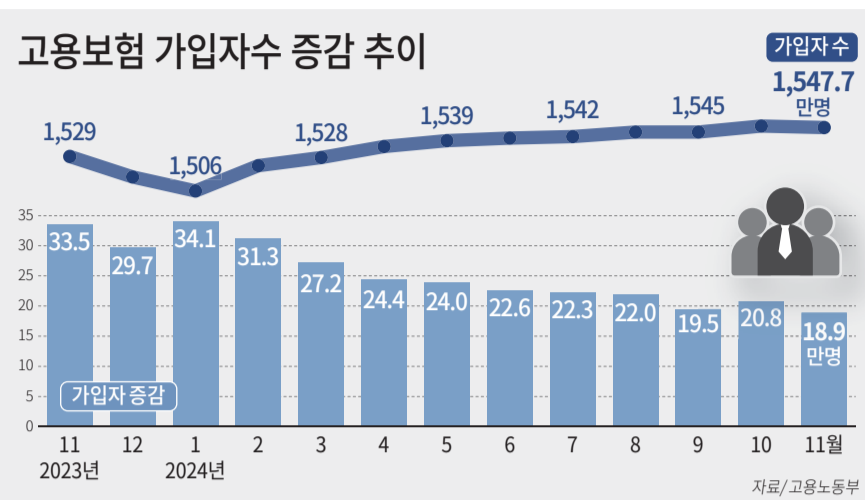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7만명 제조업 외국인 증가, 내국인 감소

고용부, '11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 증가  
증가폭 1월 34만명서 8개월째 하락  
건설업 1.7만명 감소, 16개월째 ↓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 증가했지만, 상승폭은 둔화됐다. 특히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6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8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의 증가폭은 올해 1월 34만10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5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에는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축소되며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감소하며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6월 1만명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 ▲10월

1만5000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 증가했다. 기타 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의복, 모피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8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2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

3000명 증가한 54만3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8426억원으로 1.5%(125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89.7%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코트라 "중 고령화, 바이오 신시장 공략"

7~9일 중국서 '국제의료산업박람회'

정부가 업계가 중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바이오 의료 신시장 공략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7일~9일까지 사흘간 중국 창춘에서 열린 '중국(창춘) 국제의료건강산업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오스탐플라트(치과기자재), 다산제약(고혈압, 고지혈증복합제), 세라젠(의료기기), 한국인삼공사(건강기능식품) 등 16개사가 참가했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 현지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9000만명으로 매년 약 1000만명씩 증가하며 전 인구의 21.1%를 차지한다. 노인 요양산업 규모는 2023년 약 1조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5% 성장했고, 올해 1월 중국 국무원의 실버경제 육성정책

발표 등이 이어지며 관련 시장은 2027년 약 3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웰니스에 대한 인식 제고로 치과, 재활 의료기기, 항노화 등을 위한 미용시술, 건강관리 등 분야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돼 국내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 의료 분야는 고령 환자 발병률과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 이래 매년 15% 이상씩 성장, 2025년 약 383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또 중국산 재활 의료기기가 중저가 시장에만 주로 집중돼 있어 기능성 물리치료용 재활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노화를 위한 미용 시술 분야도 미백,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한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톡스 등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면역력 강화와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 목적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인기와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합의

산업부, 대표단과 공동위원회 개최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상 가속화에 합의했다. 수출통제대화와 공급망 핫라인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최고위 회담과 11월 폐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가속화와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지난 10년 간 한중 FTA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경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왕셔우원(王愛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양국은 지난 11월 개최된 '제2차(엔칭)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한국기업 대상 중국수출통제제도 설명회(우시)'를 내년에도 개최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 성공

환경부, 실증플랜트 통수식 개최  
"반도체 산업 육성 든든한 토대될 것"

환경부는 9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에스케이(SK)실트론 구미 2공장 등에서 '초순수(Ultra Pure Water)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로,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질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된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목

표로 2021년 4월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 12월에 SK실트론에 설치·운영 중인 초순수 실증 플랜트를 통해 설계·시공·운영 기술의 100% 국산화와 핵심 기자재의 70% 국산화를 이뤘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국산 초순수 공급에 성공했으며, 해당 플랜트는 하루 최대 12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한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이 주도하던 초순수 시장에 국내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웨이퍼 생산 기업인 SK실트론은 국산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를 활용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를 제조하고 이를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보한 초순수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후속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31년부터는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구축해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 KDI,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소비·건설 부진

'12월 경제동향' 발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게임과 탄핵 시국 이전 또는 직전 지표를 기초로 작성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는 평가를 5개월 연속으로 이어갔다. 이달 또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서비스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에 머무르는 등 소비는 미약하다"며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전산업생산은 2.3%로 조업일수 확대 등으로 광공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월에 비해선 0.3%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10월 제조업 재고율(106.8%→112.7%)이 상승하고 평균가동률(73.4%→72.5%)은 하락했지만 상당 부분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다. 전월 대비로 출하는 4.2% 줄었는데 반도체의 분기 초 출하 감소 경향이 반영됐다.

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만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협황 전망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송미령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위한 지자체 협력 강조"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협의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미래농업을 위해 그린바이오 등의 신산업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2024년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

의회'에 참석해 "그린바이오 창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윈팀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

했다. 농식품부는 발전협의회 본회의에 앞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포항)' 착공식에 참석하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추진하는 5개 지자체(전북 익산, 강원 평창, 경북 포항, 경남 진주, 충남 예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